

# “5·16은 혁명, 5·18은 폭동”... 뉴라이트 ‘교과서 쿠데타’

보수학자들 새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역사교과서 논쟁’ 재연

### 극우보수세력 왜곡·편향 이어 교과서로까지 번져 광주시·시민단체, 대응위 구성 강력 저지 나서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의 새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어서 5·18 왜곡·편향 이어 교과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5·18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일 광주시청에서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영진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친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해온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 저자들이 2008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과정과 합격할 것은 처음이다.

교과서가 발행하는 이 교과서는 현재 검정심의위가 권고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는 9월 중 학교에 전사돼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사용된다.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들이 쓰는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뉴라이트 학자들이 밝혀온 견해를 고려하면 집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대안교과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을 ‘학생운동’으로 폄하했다.

제주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

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로 보고 그 시절 이뤄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면은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사 전쟁’ 재연 우려=역사 전쟁은 2008년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를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교과서포럼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10월 유신을 합리화한 대안교과서를 내놓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필자 여러분 이야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해 말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포럼과 통일부·국방부·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5·18 왜곡 더이상 못참아”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5·18 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시국회의를 열고 5·18 왜곡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 제공>

의 좌파적 편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금성교과서의 수정을 지시했다.

2011년엔 교육부가 역사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고 이후 교과서 집필기준

도 대폭 변경했다. 새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5·16 군사정변’ 등 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들이 빠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빚어지자,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기준에 넣지 않았지만 이 사건들을 교과서 집필할 때 꼭 넣으라”는 교육력

을 내놓기도 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2일 광주에서 열린 ‘현문즉답’ 행사에서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돼 있는 이슈”라고 말해 지역 사회와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5·18 역사교과서 왜

곡저지대응위원회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5·18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민주, 종편 출연금지·특혜완화법 개정 추진

민주당은 지난 31일 케이블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한 특혜 조항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 금지를 권고키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복합 특수부대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 방송들에 대한 당 차원의 후속 대응 조치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 및 미디어특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개했다.

신 최고위원은 “종편 특혜 문제와 관련해 가시화되는 종편 재허가 문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석회의 명의로 종편 출연 금지도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IPTV 및 케이블 사업자의 종편채널 의무 전송을 해제하고, 종편의 중간 광고와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

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 이를 재허가 심사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종편에 접근성이 높은 채널을 우선 배정하는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도 시정되도록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종편 출연 금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 SOC 빠진 공약가계부

### 정부 확정, 여야 모두 반발... 국회 심의과정 논란 클 듯

군공항 소음대책 2000억 투입

정부는 지난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공약가계부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약실천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흥에 33조9000억원(25%)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조에 17조6000억원(13%)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민생공약 중 광주군공항 등 전국적인 공약 주변 소음 대책 사업에는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기재부는 특히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5년간 SOC 분야 예산 11조6000억원이 삭감되는 데 대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민자사업을 활용해 문화·교육·R&D 등 분야 시설투자를 늘려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6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역 공약은 계속사업뿐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계속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 예정이며 신규사업은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 SOC 예산이 11조6000억원 줄어든데 대해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방 SOC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가계부 예산의 국회 통과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지방 SOC에서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RUE PRODUCTS, REAL PEOPLE

## 엄홍길 대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오르십시오!



###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조)
-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 후원 : 61 광주일보사

열네번째 산행 6월 21일 (금) / 대문산 \*일정 및 동선은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가능 매장

백화점 롯데광주점 062-221-1686 현대광주점 062-510-7738 신세계광주점 062-360-1253 이음렛 롯데이음렛광주수원점 062-616-2221 익산밀레이음렛점 063-839-9239 밀레광주이음렛점 062-366-5555 NC순천 061-726-5417 밀레익산밀레점 063-838-9239 밀레전북김제점 063-544-7651 밀레익산중앙점 063-852-7447 밀레전주송천점 062-266-8848 밀레목포하림점 061-282-8523 밀레광주용봉점 062-529-6200 밀레전남광양점 061-793-2744 밀레광주진남점 062-674-5888 밀레광주참남점 062-973-7775 밀레전남여수점 061-666-1921 밀레전남순천점 061-745-3068 밀레광주무등산점 062-225-2121 밀레광양월성점 061-761-7524 밀레전남여천점 061-691-6565 밀레순천중앙점 061-752-3380 밀레전남영광점 061-352-7070 밀레해남점 061-535-5425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고객문의 021-306-7033 • 대리점개설문의 021-3153-3203

## 빛의만평

- 김중두

참, 어지간히도 답이 없나보다